

독일 레겐스부르크

글 사진 | 허용선 건강칼럼니스트

▲ 교외의 쾌적한 주거환경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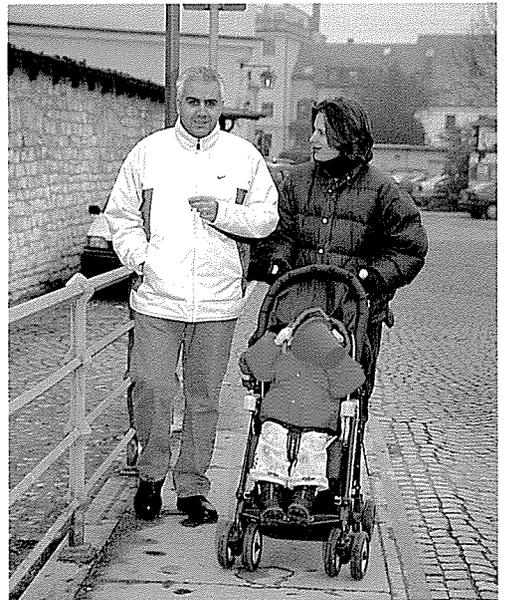
영

국의 정치전문지 에코노미스트는 좋은 기후조건, 상호인 주택, 맑은 밤하늘, 다양한 관광자원, 등을 고려해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한 결과 호주 의 멜버른, 캐나다 밴쿠버, 오스트리아 빈,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등이라고 발표했다.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등 이름난 도시가 많은 독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는 남부 독일 바바리아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다. 맑은 공기와 물, 문화유적이 많고 사람이나 자동차로 붐비지 않는 조용한 도시라는 점이 이곳의 매력이다. 한국의 경주처럼 역사적인 유적이 많은 레겐스부르크에는 8백50년 역사를 가진 석조 다리, 고딕식 성당인 베드로 대성당, 구 시청과 무역 상인들의 중세풍의 저택 등이 불만하다. 시내에 있는 건축물마다 건축양식이 다양하며 특별한 역사적인 사연이 스며 있다.

독일의 문호인 괴테는 레겐스부르크를 방문한 후 스타인 부인에게 쓴 일기에서 “레겐스부르크와 인근의 아름다움은 관광객이 모일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모차르트 역시 사랑하는 그의 부인 콘스탄체에게 “레겐스부르크에서 천상의 음악을 들으며 진수성찬에 기막히게 맛있는 포도주를 마셨다”고 전했다.

얼마 전 레겐스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흐린 날이 많아 사진 촬영에 애로점이 많았다. 하지만 독일의 중세 도시 모습이 고스란히 보존된 아름다운 곳이라 나름대로 촬영에 최선을 다했다. 레겐스부르크는 도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 6시간 정



▲ 다정한 레겐스부르크의 시민들. 독일인들은 가족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

도면 걸어서 중요한 곳을 돌아볼 수 있다. 시내 곳곳에서 들려오는 강한 역양의 정다운 말소리나 친절한 레겐스부르크 시민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남유럽의 향취를 물씬 느끼게 된다.

레겐스부르크는 중세기 도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 특징이다. 11~12세기 레겐스부르크는 경제적인 면에서 영국의 런던보다 위였고 인구도 더 많았으며 상업 교류도 활발했다. 2천년 이상의 도시 역사를 가진 레겐스부르크는 5백년 이상을 바이에른 왕국의 실질적인 수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황제나 제후들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도시이며 황제의 재판식이 세 번이나 있었다.

레겐스부르크가 유서 깊은 곳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레겐스부르크 시민들이 문화재를 아끼는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이다. 또한 14~15세기 이후 레겐스부르크는 경제가 어려워져 오래된 집들을 보수할 수 없어 그대로 둔 것이 현재에 와서는 문화재 보호에 큰 도움으로 작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을 거의 받지 않은 것도 큰 이유다. 현재 도나우강을 따라 형성된 1천5백여 채의 건축물이 시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건축양식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레겐스부르크에 오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 도심 곳곳에 로마시대는 물론 고딕, 바로크, 그리스 양식의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구시가지 광장 주변에 있는 대성당과 4곳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러한 건축양식을 잘 느낄 수 있다. 로마 제국의 군영지에 있는 초석을 보노라면 이 도시의 역사가 2천년은 족히 넘었을 것을 짐작하게 한다.

구시가지는 도나우강과 기차역 사이에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대성당은 13~14세기에 만들어진 독일 고딕 양식의 매우 큰 교회다. 우뚝 선 두 첨탑은 인상적이어서 멀리서도 대성당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천년을 넘는 도시의 역사·문화가 현대와 잘 조화를 이룬 레겐스부르크는 독일의 다른 도시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느낌을 받는다. 중세에는 상업도시로, 신성로마제국 시절에는 제국의회가 있었던 레겐스부르크는 바이에른의 수도로 발전했다.

18세기말까지 유럽 각국의 제후와 국왕의 대리사신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국사를 논의하던 사실상 신성로마제



▲ 대성당은 고딕, 르네상스 양식 등 여러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우아한 건축물이다.

국의 수도였다. 이슬람 세력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지 회복을 위해 유럽 제후들을 모아 십자군이 출발한 곳도 레겐스부르크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지나는 오래된 석교는 레겐스부르크 시민들의 자랑이다. 이 석교는 1135년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의 명령으로 시작, 1146년에 완공됐는데 당시 '기적의 건축물'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레겐스부르크를 지나는 도나우강은 물살이 세고 수량이 많아 강폭이 1백여m나 되는 큰 강으로 8백50여년 전 이곳에 다리를 건설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레겐스부르크에는 시립박물관, 마차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20여 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이 곳을 둘러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시내에는 영화 '썬더리 리스트'로 잘 알려진 썬더리가 유대인을 피신시킨 후 숨어 살던 집도 있다. 중세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존한 건물이지만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돼 있다.

거리 양옆 가게의 진열대에는 고급 의상, 가구, 골동품, 장난감 등 다양한 상품이 있어 구경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묘미다. 레스토랑에서는 여러 가지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신선한 맥주와 레겐스부르크 특산인 소시지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다. ■



▲ 중세시대 건축물이 고스란히 보존된 레겐스부르크의 시내를 보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문득 과거로 되돌아 간 느낌이 든다.